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우리나라와 미국통구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체육교류를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국 NBA(전국통구협회) 이전 선수들로 무어진 명수팀과 우리 해볼림 선수들의 통구경기가 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지난해에 이체롭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벌려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두 나라 선수들의 통구경기를 보기 위해 체육애호가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경기장소로 모여왔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무관부부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평양체육관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미국 NBA 이전 선수 데니스 로드만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 통구선수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시고 이번 경기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리해를 도모하는 훌륭한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데니스 로드맨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이번 경기를 조직한것은 존경하는 원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두 나라 체육인들사이의 교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흥미의 마음을 담아 데니스 로드맨은 원수님께 지성어린 선물을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감격과 환희에 넘쳐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리치였다.

경기애 앞서 발언한 데니스 로드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조선에 왔다고 하면서 체류기간 조선인민이 원수님을 존경하고있다는것을 느끼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러 관람자들을 감동시켰다.

이날 경기 두회전은 우리 해볼림과 미국 NBA 명수팀사이에, 다음 두회전은

두 나라 선수들의 혼합경기방식으로 진행되였다.

경기는 시작부터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열기속에 벌어졌다.

상대방의 전술적의도와 경기방식을 파악하며 랑림 선수들은 빠른 공격과 룰밀돌파, 먼거리던져넣기 등으로 득점률을 높였다.

이름난 통구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맨

도 출전하여 경기분위기를 돋구였다.

관람자들은 높은 기술과 강한 투지를 발휘하며 경기장을 중흥무진하는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백팀과 룰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혼합경기는 관람자들의 흥분을 더욱 자아냈다.

선수들은 공격과 방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멋진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다.

두 팀 선수들은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꽃아넣기를 비롯한 다양한 투기동작들로 련속 보기 좋게 득점하였다.

철저한 대인방어와 역습속공으로 형세를 부단히 전환시키며 공방전을 벌린 경기들에서 우리 팀이 미국팀을 47:39로, 백팀이 룰팀을 63:54로 이겼다.

두 팀 선수들에게 기념컵과 메달들이 수여되였다.

경기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경기애 참가한 두 팀 선수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훌륭한 경기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미국통구선수들이 체류기간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국통구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수산물랭동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며 짧은 기간애 방과제를 쌓고 부두까지 갖춘 능력이 대단히 큰 현대적인 랭동시설을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이 앞으로 큰 은을 내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수산사업소들에서 더 많은 물고

기를 잡는것과 함께 보관과 가공에 필요한 현대적인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에서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물고기대풍, 물고기사래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물고기잡이에서 계속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갈것을 호소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에서 일어난 혁신의 불길애 전국의 수산부문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물고기잡이조건은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와 사회의 수산사업소가 다름바 없지만 물고기잡이실적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경제부문 일군들이 조건리발을 앞세우면서 인민군대처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력무력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애 계산까지 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맡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번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조직하

는 수산사업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표준이 될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업소의 위치도 잡아주시고 설계와 시공단위도 정해주시였으며 자재와 설비보장, 어로공모집, 어선과 어구보장대책등을 일일이 세우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산사업소를 태양절전으로 건설하여 올해 가을부터는 물고기공급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군인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헌신하고 노력함으로써 올해애 그 어디서나 회한한 물고기풍년을 안아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